



베이징올림픽 후 중국경제 적신호로 해운시황 하락우려 경제지표를 통해 중국경제 과열 및 경착륙 여부 진단

중국에서 8월 8일부터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열린 2008베이징 하계올림픽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림과 동시에 세계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간 계기가 되었다. 전문가들은 동 올림픽 개최 후 중국 경제에 대해 낙관론과 부정론 입장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를 요약한 것이다.(편집자 주)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01년 WTO가입 이후 중국경제는 연평균 10%대의 경제성장과 1%대의 물가상승 등 고성장-저물가 시대를 구가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2003년 이후 세계경제 호조에 따른 중국의 수출확대와 고정투자 급증에 힘입은 바 크다. 향후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농촌 및 서부개발 투자, 내수확대 등으로 고도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우세하지만, 최근에는 지나친 고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경기가 급랭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통해 중국경제의 과열 및 경착륙 여부를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 지난 10년간의 중국경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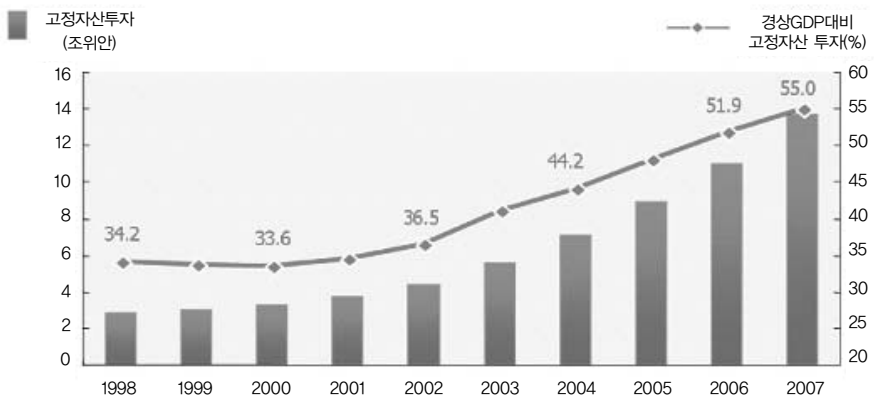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경제는 '중국식 新경제'로 지칭될 정도로 '고성장-低물

가' 시대를 구가했다. 2002년부터 5년간 연평균 10.4%의 고성장 속에서도 물가상승률은 1.9%의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2007년 현재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제4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독일을 근소한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2003년 이후 저금리에 따른 과잉유동성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한 것이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의 수출확대를 뒷받침하였다.

2001년 베이징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자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투자 붐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고정자산투자(1년 이상 생산 활동에 쓰이며 수익의 원천이 되는 토지, 건물, 공장, 기계, 영업권 등 포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합)가 급증했다.

1978년 이후 재정권한이 강화된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발전과 세원확보를 외치며 투자를 적극 장려했고, 이에 부흥해 경상 GDP 대비 고정자산투자 비율이 2001년 34.2%에서 2007년 55.0%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다.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에 대해 '지속적인 고도성장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최근 지나친 고속성장에 따른 경기과열로 인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는 비관론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만이 나 홀로 고도성장을 지속하기는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통해 중국경제의 과열 및 경착륙 여부를 진단해 볼 시점이다. 또한 세계 경제의 또 다른 버팀목이자 한국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는 중국경제가 급락할 경우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 중국경제의 과열을 알리는 신호

중국경제는 2003년 이후 6년간 잠재성장률을 1%p이상 상회하는 고도성장을 지속해 경제의 과열현상이 발생하였다. COI(중국경제 과열지표 ; China Overheating Indicator)도 2007년 12월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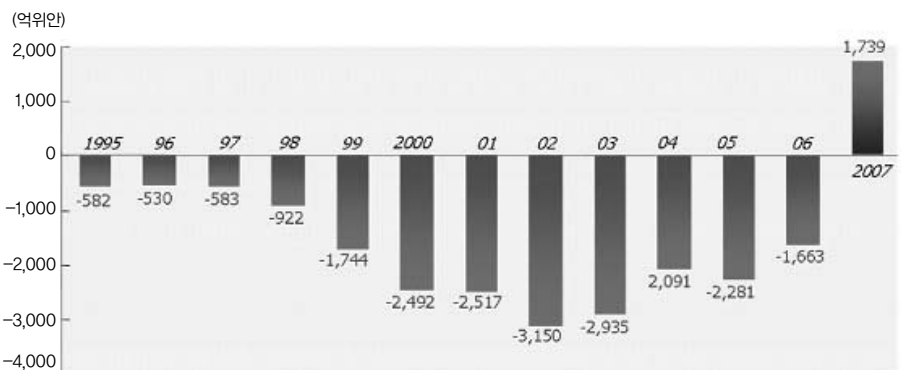
기준치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등 중국경제의 과열을 경고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인플레이션 압력이 누적된 가운데, 2007년 8월 이후 달러약세, 세계 석유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7%대로 급등했다. 또한, 2008년 4월 중 소비자 물가는 전년동원 대비 8.5% 상승해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6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8.8%로 3년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5월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돼지고기 등 식품가격과 생산자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당분간 高물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안화의 추가 절상에 대한 기대감과 美-中간 금리차이를 겨냥한 핫머니(환율 및 금리 차이로 인한 단기 수익을 겨냥해 국가간에 이동하는 투기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통화팽창 압력도 가중되었다.

1999년 이후 매년 1천억위안 이상의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성장에 매진했으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차 확대되자 중국정부는 2007년 재정정책 기조를 흑자재정으로 정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하

중국의 재정수지 추이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는 등 긴축기조를 강화했다.

2007년 중 중국인민은행은 기준금리인 1년 만기 예금금리를 6차례에 걸쳐 1.35%p 인상했다.

수년간에 걸친 과잉투자로 인해 철강, 자동차 등 다수 산업에서 과잉설비 문제가 잠복되어 있다. 2006년 현재 중국 철강업체는 870여개로 잉여설비 규모는 0.8억톤/년정도되는데, 2010년에는 총생산능력이 6억톤에 달해 약 2.5억톤의 잉여설비가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과잉투자 문제가 잠복되어 있으나, 세계경기의 하락세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기업들의 가동률 하락 등으로 과잉설비 문제가 중국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하락을 예견한 중국기업들은 감원과 투자축소 등 긴축경영에 돌입했고, 로컬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외자계 기업들도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분위기이다.

▶ 베이징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

성장, 물가, 자산가격, 투자 등을 통해 과열상태임이 확인된 중국경제는 베이징올림픽 이후 감속성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감속성장의 수준을 가능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구성요소인 투자, 수출, 소비, 정부정책 등으로 세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출여건은 세계경제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계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선 2008년 상반기 무역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했고, 6월 무역흑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7%하락했다. 물가상승, 임금인상으로 생산비가 증가하고, 위안화 평가절상 등으로 수출



경쟁력도 약화되었다.

2008년 1월부터 新노동법과 기업소득세법을 시행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되어 세계의 저가품 공급기지로서의 장점도 약화되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폐지되고, 외자기업과 중국기업에 대해 동일 법인세율(25%)을 적용하며, 근로자와 세 번째 계약시 무기한 계약, 퇴직금의 기준 강화 등 노동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소비부문은 살펴보면,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의 소비는 중국정부의 기대만큼 늘어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정부는 '위안화 절상 및 긴축정책→물가안정→실질소득 증대→구매력확대→소비증가'의 순순환을 기대했으나, 대전제에 해당하는 물가안정이 흔들리게 되면 실질소득이 줄고, 수출감소는 근로자의 해고증가로 이어져 구매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발생한다. 특히, 자산가격 하락으로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조짐은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중국의 경기하락세가 본격화될 경우 對중국 수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한국 수출의 22.1%(2007년)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중국의 실질 GDP가 1%p 하락할 경우 對중국 수출은 2.5%p 감소한다.

특히, 중국 GDP를 수출과 내수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對중국 수출은 내수보다는 중국의 수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對중국 수출감소는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을 저해한다. 특히, 섬유, 석유화학, 전자 등 중국(가공무역)을 통해 해외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던 국내기업들의 對중국 투자가 위축된다. 또한, 對중국 수출비중이 큰 국내 제조업의 설비투자 둔화, 부가가치 하락과 고용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률이 7%대로 급락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경기 급랭의 한국기업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중국發 수출상품의 덤핑문제이다. 과잉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수출업체가 경기급랭에 대응하여 가격덤핑 전략을 구사할 경우 한국의 가격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원자재에 적용했던 수출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불황기는 후발주자를 따돌릴 수 있는 호재이므로 기업은 충분한 여유역량의 확보를 통해 공격경영을 시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격경영에 필요한

여유역량 확보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경제의 질적 고도화를 겨냥한 새로운 사업분야에 진출하여 새로운 유망사업 발굴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 예로 호텔, 상업, 레저 시설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복합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현재 여러 국내 대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대형 쇼핑몰, 테마파크 등 다양한 복합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해운시황 급락

최근들어 부정기선화물선 시황의 명암을 나타내는 BDI 종합운임지수가 거의 폭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운시황의 이같은 하락이 중국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기간중 중국 항만의 규제가 대폭 강화된데다 공장가동률의 저하로 원자재 수입규모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에서는 장애인올림픽이 끝나는 9월 하순부터 해운시황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의 급격한 시황하락은 중국 베이징올림픽을 떠나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이 끝나는 9월 하순이후 시황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벌크선시황의 명암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6월11일 부정기선 종합운임지수인 BDI가 1만1,000포인트를 웃돌았으나, 3개월만에 5,200포인트로 급락한 벌크선시황이 저점을 찍고 상승할 것인지 여부가 베이징올림픽 종료 이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